

검증없는 위해성 논란이 시발점...환경영향평가 급선무

광주-나주시 SRF(가연성 폐기물 연료) 반입 갈등 원인과 해법

광주시와 나주시가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나주 주민은 비싼 값에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은 SRF 관련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역에서 SRF를 만들어 이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한 뒤 나주지역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이 틀어지면서 '쓰레기-에너지 대란'을 맞게 됐다.

전문가들은 일부 나주 주민이 주장하는 SRF위해 여부를 밝히기 위해 환경성 검토를 받은 뒤 오염물 배출이 낮은 경우,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SRF를 재공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SRF 생산과 공급은 어떻게? SRF 논란은 광주시의 상무소각장 폐쇄와 나주 혁신도시 조성이 맞물리면서 시작했다. 광주시는 상무소각장 폐쇄 대안으로 SRF생산 시설을 만들어 불에 태워 없애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11월 민자유치 등을 통해 947억원을 들여 양과동광역위생매립장 내에 광주 SRF생산시설을 마련했다. 또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집단 열에너지와 전기공급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지난 2014년 사업비 2700억원을 들여 착공했다. 이후 나주, 순천 등 인근 지역에서 SRF 공급량이 부족하자 광주시 양과동에서 생산되는 SRF를 하루 310t 공급받기로 했다.

문제는 국내 SRF 시장이 일종의 독점 공급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SRF 연료

양과동매립장 연료 생산 중단

나주열병합발전소 발전 중단

장기화면 피해 양지역 주민 뭉

생산시설이 들어설 때 이미 SRF 연료를 소비할 열병합발전소가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건립된다는 이야기다. 이때문에 양과동 SRF 생산시설의 유일한 SRF 연료 소비처인 나주 열병합발전소에서 SRF 연료 반입이 중단되자 지난 1월 15일 이후 광주 SRF 생산시설도 가동 중단됐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SRF를 이용한 발전은 중단한 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손실은 지난 3월말 현재 67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뭉=나주 열병합발전소에서 광주 SRF반입을 중단한 뒤 광주 SRF 생산시설과 전남지역 한 SRF아저장은 사용하지 않은 SRF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손실은 지난 3월말 현재 67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립이 금지된 대형마트와 병원 등지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SRF 생산 중단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쓰레기 대란'은 불가피해졌다. 또 비싼 LNG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나주 열병합발전소도

SRF 공급 중단이 계속되면 나주지역 1만 8000세대의 에너지 공급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현재 SRF 생산과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광주 SRF 생산시설과 나주열병합발전소는 손해 발생액 187억원을 보상받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나주시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나주시 반발...SRF 환경성 검토 시급=광주지역 SRF 반입 문제에 대해 나주시는 "2009년 협약을 준수하라"고 광주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연료로는 전남지역 16개 시군의 SRF를 반입한다'고 2009년 환경부를 포함 9개 기관이 협약했다"며 "협약당사자에 광주시는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광주지역 SRF 원료의 위해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갈등이 이어지면서 "나주시 일부 주민들이 SRF의 환경성에 의문을 품으면서 논란이 시작된 만큼, 광주에서 생산된 SRF 원료의 위해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정확한 근거 없이 SRF 발전이 환경에 더 나쁘다는 주장 탓에 논란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주민과 지자체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SRF 발전의 환경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나주=손영철 기자 ybson@



광주시와 나주시가 광주지역에서 생산된 SRF 반입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이 단축되고 나주지역 에너지 공급비용이 치솟을 우려를 낳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 광주형일자리·세계수영대회 지원 요청 전남도, 에코생태공원 조성 등 현안 10건 건의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전국 순회 정책간담회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0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각각 만나 광주-전남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시청 비즈니스 룸에서 한병도 정무수석,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등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정중재 행정부시장 및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순회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사업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광주군 공항 이전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직접 현안을 설명하며 한 정무수석의 이해를 도왔다. 먼저 광주수영대회의 경우 내년 국내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국제규모 대회이고, 남북 평화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 대회인 만큼 총사업비 변경과 국비 추

가 지원, 북한 선수-응원단 참가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내 지역자문위원회 설치, 광주시 문화관련 공직자 위촉 등을 포함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군 공항 이전은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업인 만큼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 지원 확대, 이전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 국책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광주가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광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제1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지방 일자리문제, 재정분권의 실질적 내용 등을 파악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도청을 찾은 한 정무수석에게 에코생태식물공원 조성, 지방분권 강화 등 10건의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 기후변화 대응과 우수한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태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및 에코생태식물공원'을 국가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 민선7기 핵심 시책인 에너지 관련 기업 1000개 유치를 위해 빛가람에너지밸리 권역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산업의 모든 것이 전남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허브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 개선을 통해 실질적 재정분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차세대 ESS산업 생태계 구축 ▲한전공대 설립 ▲남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남해안철도(목포-보성) 조기 건설 및 전철화 ▲여수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및 국제회의도시 지정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2단계 사업 추진 등을 건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민선 7기 전남 자치단체장 '일자리 창출·상생협력' 결의 다졌다

첫 상견례·정책 간담회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돼 7월 일제히 취임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22개 시·군 단체장들이 지난 20일 처음 만나 지역발전을 다짐했다.

김 지사와 김종식 목포시장 등 시장·군수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민선 7기 첫 상견례를 겸한 일자리 협력 간담회를 했다. 단체장들은 당선 소감을 나누고 도-시·군정 비전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선거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성과가 도민 행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자는 뜻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병주 전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전남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를 다졌다. 단체장들은 업무협약에



김영록 전남지사와 22개 시·군 단체장들이 지난 20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민선7기 출범 후 첫 정책간담회를 열어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 지원 등 도·시군의 상생발전을 다짐했다. <전남도 제공>

서 도와 시·군이 도민 행복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지원에 협력하는 등 4개 항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지사와 시장·군수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정치·경제·과학·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

역에서 전남의 미래를 이끌 혁신인재를 육성하며, 농·수·축산업, 문화관광산업, 지식정보화산업, 4차 산업혁명의 전문기를 늘리기로 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 운영,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HNT 하나투어

몽골 별하늘, 바람, 초원의 땅

무안공항 울란바타르 직항

[3박5일] 7월 28일(토), 8월 6일(월), 10일(금), 14일(화), 18일(토)
[4박6일] 8월 1일(수)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하나팩

★단 5날짜 한정특가
7월28일, 8월1일, 6일, 14일, 18일

CNPF85
1,099,000원~
울란바타르/테를지5,6일

현지지를 가이드, 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푸르른 대초원 #게르 2박 숙박

유목민 생활체험
테를지 초원 승마체험

CNPF87
1,599,000원~
울란바타르/테를지 5,6일

현지지를 가이드, 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몽골전통공연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총장점 062)228-1199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비용,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인정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에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특별이벤트 시기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편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산/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여행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항공권 또는 항공편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체재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여행 단체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취소 권고 ●여행 금지 | 본 상품은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총장점]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